

핀란드 라플란드 사리셀카의 밤하늘을 수놓은 오로라. 밤에 영하 30도에 가까운 추위를 2~3시간 이상 견뎌야 볼 수 있지만, 힘든 인내만큼 가슴 설레는 감동을 준다. 사진제공 | 라플란드 관광청

'청정 겨울여행의 꽃' 핀란드 라플란드

연간 200일 이상 오로라 볼 수 있는 곳
글라스 이글루에서 보는 밤하늘 최고
사리셀카 설원은 겨울레포츠의 천국
순록 사파리·스노모빌 타고 자연만끽

산타클로스의 고장, 디자인 강국, 노키아, 그리고 자일리톨.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그리 많지 않다. 유럽여행하면 떠오르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나 요즘 급상승한 크로아티아에 비해 조금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핀란드는 무공해의 청정자연 속에서 겨울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나라다. 특히 핀란드 북쪽과 스칸디나비아반도 북부, 러시아 콜라반도를 포함하는 유럽 최북단 지역인 라플란드는 오로라투어 같은 자연 탐방과 다양한 레포츠가 있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겨울여행 명소로 인기가 높다.

●자연이 만드는 밤하늘의 오페라…오로라투어

라플란드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오로라투어다. 오로라투어는 국내서는 캐나다의 옐로나이프가 유명하지만, 유럽서는 노르웨이 트롬쇠, 스웨덴 키루나와 함께 핀란드 라플란드를 오로라여행 명소로 꼽는다. 라플란드에서는 연간 200일 이상 오로라를 볼 수 있다. 노던 라이트(Northen Lights)라고도 부르는 오로라를 핀란드에서는 '레본툴레트'(도깨비불)라고 부르는데 오로라에 관한 전설이 20개가 넘는다.

평균 영하 20도 안팎의 날씨 탓에 오로라를 보려면 방한복과 모자, 마스크, 장갑 방한화가 필수다. 특히 방한화는 투자를 좀 하더라도 영하 3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게 좋다. 실제로 이번에 방문한 라플란드 사리셀카와 이나리는 취재 기간 낮 영하 22도, 밤에는 최저 영하 37도까지 떨어졌다. 오로라를 사진으로 찍는 것도 사람들의 로망이다. 운이 좋으면 스냅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도 찍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미러리스나 DSLR이 유리하다. 삼각대와 추위 속 방전에 대비한 여분 배터리는 기본. 오로라가 나타나는 시간이 보통 밤 8시부터 자정, 길게는 새벽 2~3시까지여서 북극의 추위를 참고 기다릴 인내도 요구된다.

하지만 이런 준비를 해도 오로라를 볼 수 없으면 헛일. 오로라는 구름이 낀 흐린 날이거나 반대로 달빛이 너무 밝아도 보기 어렵다. 라플란드 여행 4일 동안 오로라를 본 것은 딱 이틀. 이럴 때 유용한 것이 오로라 예보다. 예보사이트는 여러 개가 있지만 알래스카 패어뱅크스 대학 지질연구소의 사이트(http://www.gi.alaska.edu/AuroraForecast)가 괜찮다.

●설원 달리는 허스키 순록 사파리에서 스노모빌까지

라플란드의 사리셀카는 우르호 케코넨 국립공원에 속해 있고 눈이 많이 내려 인기 높은 스키 리조트이자 겨울레포츠의 천국이다.

사리셀카의 겨울 액티비티는 무척 다양하지만 역시 허스키나 순록 사파리, 스노모빌이 최고 인기다. 허스키 사파리는 시베리안 허스키 개 6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설원을 달리는 프로그램이다. 손님이 직접 드라이버로 운전을 맡아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쾌감이 있다. 시속 15~20km지만 체감속도는 제법 빠르다. 눈 덮인 숲 속 나무 사이를 달릴 때는 마치 '겨울왕국' 속에 들어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허스키 사파리는 시간제(2시간, 4시간)부터 밤에 썰매를 타고 나가는 오로라헌팅, 아예 이틀 동안 야생자연을 썰매를 타고 누비는 상품까지 다양하다. 가격은 2시간 코스가 보통 143유로(약 18만3000원)부터 시작하고 이틀 코스는 950유로(약 122만원)이다. 순록사파리도 허스키 사파리와 비슷한 상품 구성이지만 가격은 조금 저렴하다. 밤에 타는 순록 사파리는 하늘 가득한 별빛 속을 달리는 느낌이 이채롭지만 속도감은 조금 떨어진다.

스노모빌도 허스키, 순록과 비슷한 상품 구성이다. 속도감은 단연 최고지만 18세 이상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없으면 가이드나 동료 뒤에 타야 한다).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해를 달리는 3일짜리 상품이 있다. 여행기간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는데 가격이 2800유로(약 359만원)나 되는 고가 옵션상품이다.



사리셀카 칵스라우타넨 리조트의 글라스 이글루. 이글루 앞 썰매는 투숙객 짐운반용(왼쪽 사진). 두툼한 담요를 덮고 북극 겨울밤을 즐기는 순록 사파리. 사리셀카(핀란드) | 김재범 기자

●유리 이글루에 누워 밤하늘 오로라를 본다

사리셀카에는 다양한 관광객이 찾는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살린 색다른 호텔과 리조트가 많다. 이중 요즘 한국서도 인기인 곳이 칵슬라우타넨 리조트. 이곳에는 천정을 유리돔으로 만든 '글라스 이글루' 객실이 있다. 밖에서 추위에 고생하지 말고 따스한 방에서 침대에 누워 유리천정을 통해 밤하늘을 보고 오로라도 감상하라고 만든 객실이다. 특수 제작한 유리는 방안을 영상 20도 정도의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한다. 리모콘으로 침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기분 따라 앉아서도 누워서도 밤하늘을 구경할 수 있다. 이밖에 산타클로스를 콘셉트로 한 이색 호텔체인 '산타스 호텔'도 사리셀카 외에 산타의 마을로 유명한 로바니에미와 루오스토 등 세 곳에 있다.

사리셀카(핀란드) |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핀에어, 인천-헬싱키 직항 노선 주7회 운항

기내용품도 디자인 뛰어난 유명 브랜드

라플란드로 가려면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반타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국내선으로 이발로 공항까지 가야 한다. 헬싱키까지 직항은 핀란드의 핀에어가 유일하다. 핀에어는 2008년 인천-헬싱키 직항 노선에 취항해 현재 주 7회 운항된다.

1923년 창립된 핀란드 국영항공사 핀에어는 유럽 여러 도시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갈 수 있어 알뜰 유럽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실제로 '아시아와 유럽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항공사'라는 슬로건 아래 연간 8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자랑한다. 핀에어는 창사 90년 동안 항공 안전사고가 한번도 없는 것을 자랑한다. 2011년 7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항공사 안전자료에서 최근 1년간 지연, 결항률이 0.0%를 기록했다.

핀에어는 톡톡 튀는 디자인 감각으로 유명하다. 디자인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나라의 국적기답게 '마리메코'와 '이딸라' 같은 자국의 유명 브랜드가 핀에어 전용 기내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담하고 산뜻한 패턴과 색상이 인상적인 마리메코의 냅킨과 담요, 라플란드의 겨울하늘 같은 이딸라의 와인글래스는 핀에어의 상징이다. 또 헬싱키 반타국제공항의 핀에어 라운지는 핀란드 특유의 심플하면서 세련된 실내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최근 완공한 프리미엄 라운지에는 핀란드의 상징인 사우나까지 갖추었다. 김재범 전문기자



핀에어 비즈니스 클래스 기내용품으로 쓰이는 마리메코 식기.

'파워블로거 통해 광고' 보령제약 등 적발

제품소개·추천글에 대가성 표기 안해

대가성임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자가 많은 파워블로거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소개, 추천글을 게재하도록 하면서도 대가성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3개 업체에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령제약은 자사 제품인 점안액과 기미치료제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했다. 광고대행사는 파워블로거 등을 모집해 블로그에 제품소개, 추천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건당 5만원~15만원, 총 495만원을 지급했다. 소니코리아도 노트북 광고를 위해 블로그에 글을 게재했다. 블로거들에게는 총 29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성 여부를 은폐했다.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인 것처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개정된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소개· 추천글을 올릴 경우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 명단을 각 포털사이트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현대리바트 ▲비핸즈카드 ▲한빛소프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네오팜 ▲서울탑치과▲하렉스 인포텍 ▲팅크웨어▲아이엑스 ▲유씨코리아 ▲브런치 ▲차이정 성형외과 ▲이범권치과 ▲플라덴 성형외과 ▲스타일인덱스 ▲백과원 ▲에바항공 ▲오므론 헬스케어 등 모두 20곳이다. 양형모 기자

과채음료 굿! 마시는 것도 웰빙

맛·영양 높인 無첨가물·100% 착즙 주스 주목받아



최근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오렌지주스가 1잔 당 평균 각설탕 6개 수준의 당을 함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당 논란에 휩싸인 과일 주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첨가물을 넣지 않은 과채 음료와 100% 착즙 주스가 주목받고 있다. 과일과 채소를 재료로 맛과 영양을 높인 과채음료는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용으로도 인기다. 대표적인 제품을 살펴봤다.

대상웰라이프 '프레시톡(사진)'은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 바나나 등의 재료를 갈아서 만들었다. 해독주스 레시피를 그대로 적용한 제품. 채소와 과일 이외에 합성착색료, 합성착향료, 보존료, 감미료 등 인공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웅진식품도 다양한 과일과 채소로 만든 건강주스 '자연은 데일리톡'을 선보이고 있다. '브로콜리와 5가지 야채과일', '적양배추와 5가지 야채과일' 2종이다. 브로콜리, 당근, 적양배추, 레드비트 등의 채소와 과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만들었다.

100% 과즙을 내세운 착즙 과일주스도 최근 인기다.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은 물론 가공을 하지 않고 100% 과일을 착즙해 만들기 때문이다. 매일유업 '플로리다 내추럴'은 수확 당일 착즙하는 시스템으로 생생한 과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플로리다 내추럴 오렌지 주스 750mL의 경우 생오렌지 8개, 자몽 주스에는 생자몽이 4개 들어간다.

풀무원 '아임리얼'은 자몽, 오렌지, 토마토, 딸기, 키위 등 13종의 무첨가 착즙주스를 판매하고 있다. 물, 향료, 색소, 설탕 등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았으며, 생과일만을 착즙하여 만든 100% 순수 착즙 주스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클라우드 인기 "오! 놀라워라"

출시 9개월만에 1억병 판매 돌파…공장도 증설

롯데주류의 맥주 클라우드(Kloud)가 출시 9개월만인 21일 판매 1억병을 돌파(330ml 기준)했다. 이는 20~69세까지의 한국 성인 인구를 약 3천만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1인당 3병씩 마신 셈이다. 또 1억병(235mm)을 일렬로 눕혀 놓으면 약 2만3천km로 서울-부산(415km)을 27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클라우드는 맥주시장에서 비수기로 분류되는 겨울에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 분기별 판매량이 작년 3분기 3500만병에서 4분기 4000만병으로 상승했다. 12월에만 1500만병이 판매되며 월 판매 최고치를 갱신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올해에는 연간 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 만큼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롯데주류는 기존 충주공장의 연간생산량을 5만킬로리터에서 10만킬로리터로 늘리는 증설작업을 완료했으며, 증설된 공장에서는 2월 맥주 담금을 시작해 3월부터 클라우드가 생산될 예정이다. 4월에는 연간 50만킬로리터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제2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2016년 완공되면 국내 맥주시장의 약 30%에 해당하는 총 60만킬로리터의 연간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원성열 기자

시티백팩, 직장인 위해 태어나다

코오롱스포츠 '솔리드 CITY 백팩' 등 3종 출시



직장인의 옷차림 트렌드가 정장에서 비즈니스 캐주얼로 변하면서 실용적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백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코오롱스포츠가 출시한 시티 백팩 3종은 세련된 시티 라이프를 위한 아이템이다.

'솔리드 CITY 백팩(18만8000원)'은 톤 다운된 컬러와 두 개의 아웃포켓으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다. 전면지퍼 여밈으로 열고 닫기가 편하다. 등판 안쪽에 쿠셔닝 처리가 된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어 태블릿PC나 노트북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다. '배색 CITY 백팩(14만8000원·사진)'은 넓은 내부공간과 세밀한 파티션으로 효율적인 수납을 할 수 있다. 등판 사이드 부분에 숨겨져 있는 지퍼포켓이 있다. 지갑이나 여권을 넣기에 좋다. '스퀘어 배색 CITY 백팩(15만8000원)'은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내부 수납공간이 넓어 다양한 제품을 넣을 수 있다. 실용성이 뛰어난 백팩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